

협회행사 보고 ① ; 전문인워크숍 개최

우리 협회는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와 공동으로 6월 4일(월) 오후 2시부터 COEX 회의실 402호에서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대책”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첫 번째는 황적인 서울대 명예교수가 ‘도서관과 저작권’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황적인 교수는 발표를 통해 도서관과 기타 저작권 문제에 대해 대학도서관에서의 비디오 대여문제와 도서관의 방송물 복제 등에 대해 다루었고, 대여권과 유사하면서도 구별하여야 할 공공대출권에 대해 소개하였다. 공공대출권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나 음반·녹음물 등을 공중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된 분량만큼 저작자가 판매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므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대여권이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의 상업적 대여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라면, 공공대출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이 도서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비영리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최성균 복사전송권관리센터 사무국장은 도서관과 관련된 저작권 처리문제는 주로 복사권과 전송권에 관련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형태는 대다수가 복사와 전송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복사권과 전송권을 집중관리하는 (사)한국복사권관리센터는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처리에 해결점을 제시해주고 수많은 저작권자 개개인의 권리 처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법 규정에 대해 저작물 이용

의 기초, 도서관에서의 복제(복사), 도서관에서의 전송,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법의 적용으로 도서관 자료의 입수, 도서관 자료의 복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한 공연·방송, 도서관 자료를 이용한 전시, 도서관 자료의 대여, 도서관 자료의 전송, 도서관의 문헌정보 서비스, 도서관 이용자의 복사, 도서관 직원의 복사, 센터와 도서관의 복사·전송권 관리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복사·전송권의 관리 부분에서는 복사권의 관리의 경우 전권 복사가 아닌 저작물의 일부(5%선)를 1인1부에 한해 허락해주고 이를 관리한다는 것이 잘 지켜질 것이냐에 있으며, 계약에 의한 관리와 불법 복사의 단속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전송권의 관리는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상황에서 센터의 발족이 다소 늦기는 하였으나, 그 역할은 앞으로 상당한 비중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현재 도서관계 종사자 및 관련 인사로부터 도서관에서의 복사권 및 전송권(특히 전송권)의 관리를 어떻게 준비중인가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센터가 준비중인 전송권의 관리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센터가 설립 이후 전송권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신탁관리업체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전송권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므로 지금 현재의 센터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거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는 요즘 급변하는 정보의 틀에 갇힌 현대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는 “기술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기술로 해결한다”

에 기초한다고 하면서 센터의 전송권 관리의 출발도 '전자적 관리 시스템'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공공도서관 부문 사례발표로 참여한 김효숙 사서는 도서관과 관련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올려진 질의와 도서관 메일링리스트 글목록에서 관계 질문들을 모아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정리해본 결과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도서관을 제한하고 있는 시행령이 규정상의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여러 도서관에서 구축한 디지털 자료의 활용과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에 대한 광범위한 서비스의 제공 측면에서의 타당성은 결여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립도서관 원문DB 구축과 관련해서는 공공도서관의 명칭 변경과 민간위탁과 관련한 총체적인 문제로 귀결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디지털 자료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한 합리적인 범위 규정과 관련 기관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대학도서관 부문 사례발표자로 참석한 김종은 교원대학교 사서는 대학도서관과 저작권법에 대해서 다루면서,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의 제한과 도서관에서의 복제, 저작권보호방법 등을 언급하였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으로는 일반 이용자도 일정한 이용료를 지불하고 어디서나 자료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공유 혜택도 받고 저작자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는 모든 원문의 전자결재시스템을 받아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경유, 전송권료 위탁(공탁) 등을 통해 자유롭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고 한다고 하면서 제도 주장만으로는 복제 전송 기술을 막을 수 없으므로 저작권을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협회행사 보고 ② ; 제1회 도서관문화강좌

IFLA 2006서울총회 준비위원회 사무실 개실을 기념하고 제37회 도서관주간 행사의 하나로 기획된 제1회 도서관문화강좌가 '도서관 사상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2001년 4월 12일부터 5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IFLA 2006서울총회 준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모두 4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강좌는 매 강의마다 약 70명 가량의 도서관인이 참석해 국내외 훌륭한 도서관인의 사상과 업적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제1강 랑가나단

첫 번째 강좌는 부산대학교 김정근 교수가 '랑

가나단 어떻게 할 것인가 - 알고 넘어갈 것인가, 건너 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랑가나단에 기대어 우리 문헌정보학 고전의 번역 문제와 학문에 있어서의 '기술'이 아닌 '정신'의 문제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도서관학/문헌정보학의 창업자들이었던 이대의 이봉순, 김세익, 연대의 리재철, 성대의 이춘희, 천혜봉, 중대의 정필모, 심우준 그리고 당시 KORSTIC의 김두홍과 같은 여러 선배 사서들이 '사서정신', '도서관정신'을 특히 강조하면서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제5법칙을 언급하였다고 술회하였다. 그 후 김세익 선생님을 통해 이대 도서관에서 랑가나단의 원전 (Ranganathan, S. R. 『The Five Laws of

Library Science』. Madras: Madras Library Association, (1931) 1957)을 대출해 보았던 자신의 경험의 소중함과 이 책의 번역 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김 교수는 랑가나단의 언어를 간결, 담백, 시적이며, 도서관에 대한 사랑의 노래이며, 애절하고 애뜻한 여운이 남으며,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하다고 표현하였다. 이 밖에 '도서관 정신'과 관련 있는 책으로 1970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행한 『발전도상국의 도서관직』(Lester Asheim, 『Librarianship in the Developing Countries』)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김 교수는 3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를 돌면서 느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 수입언어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폭넓게 지적하였다. 랑가나단을 포함하여 문헌정보학 고전의 세례를 듬뿍 받아 '도서관 정신'이 비교적 잘 확립된 사회에서의 기술 강조와 그와 같은 경험이 없는 토양에서의 기술 경도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혼'을 놓치고 기술제일주의로 달려갔다는 비판적 견해를 제기하였다. 무엇보다도 도서관학/문헌정보학의 고전의 경우 일부 연구자들에 의한 간헐적인 인용과 소개가 있어 왔을 뿐 제대로 된 우리나라 말로의 번역이 거의 없어 바른 '도서관 정신'과 '사서 정신'의 전면적인 대중화 과정이 없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우리 잃어버린 '정신'을 찾아 나서 문헌정보학의 고전에 눈을 돌리자"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김정근 교수는 "한국 문헌정보학은 고전의 기반 위에 올려져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학문은 비로소 '혼' (soul)과 '정신' (spirit)을 갖추게 된다. 그런 연후에야 우리 학문은 역사적 논리와 철학적 근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동시

에 우리 학문은 이 기반 위에서 담론의 피상성과 유행성을 뛰어 넘을 수 있으며 다른 학문 분야와 당당하게 겨루어 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갖게 될 것이다"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제2강 세라

두 번째 강좌는 중앙대학교 남태우 교수가 세라의 '도서관론'과 '도서관학(문헌정보학)'의 지적 기원에 대해 강의하였다.

남 교수는 세라의 생애, 도서관의 인연, 사회과학적 연구로의 전개, 세라와 게이츠의 대조적인 '도서관학 개론' 비교분석, 주요 논저의 서지적 분석 및 서지 리스트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세라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도서관학 학자로서 1947년에서 1952년까지 시카고 대학에서, 1952년에서 1970년까지는 케이즈 웨스턴 리저브대학에서 도서관학을 가르쳤으며 1970년 은퇴이후에도 1982년에 작고하기까지 교육과 저술활동에 전력한 인물이다. 그는 특히 도서관학의 교육 및 학문적 기반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학자로 그의 논문들 대다수는 도서관학 본질을 규명하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그가 발표한 논문들 중 상당수가 'The foundation of ...'로 시작되는 논제가 많은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라고 설명하였다. 세라는 1949년에 발표한 "공공도서관의 기초" 이후 단행본 12종을 저술하였으며, 논문은 480여 편 가까이 저술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지적개혁자다운 놀라운 학문적 집적결과라고 세라를 예찬하였다.

세라가 도서관계에 남긴 공헌 중 대표적인 것은 라이브러리언십을 '대상물(Thing)'이 아닌

‘개념(Concept)’으로 보고 접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라가 라이브러리언십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가 평생에 걸쳐 연구한 이념적, 사상적 테마인 ‘도서관이란 무엇인가를 사회적 측면에서 연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 것이며, 특히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서관은 성장하고 있는 유기체이다’라는 철학과의 깊은 연관성에서 구축한 이론이며,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세라의 사상에 근거하여 볼 때 훌륭한 사서는 도서와 인류 모두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용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자기 훈련법을 배워야 하며, 유머감각이 있어야 하며, 전문적인 성취를 위한 노력 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응해서 도큐멘테이션의 가속화가 일어나 도서관계도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도서관과 사회를 연결할 공리를 하였는데, 세라는 문화적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은 전통적인 역할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그 전파(전달)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라의 도서관학 개론서 『문헌정보학의 철학과 사상』(Sera, Jesse H.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basic elements of library service』 Littleton, Col., Libraries Unlimited, 1976)은 완전히 새로운 구성으로 정보과학에 치우쳐 있으며, 8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장 도서관사(보스틴공공도서관 설립까지), 제2장 도서관과 사회(도서관론으로 커뮤니케이션, 자료수집, 알 권리, 어린이와 도서관), 제3장 독자와 도서관 매체론, 제4장 도큐멘테이션 원론, 제5장 새로운 키의 라이브러리언십(국가 종합목록과 정보과학), 제6장 구조, 조직(전문직의 문제), 제7장 교육과 연구(도서관학의

교육과 연구), 제8장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전국적 네트워크)와 도서관론에 정보과학을 조직해 넣은 것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게이츠(Jean Key Gates)처럼 세론을 참작한 것이 아니라, 세라 자신의 철학이고, 70년의 경력에서 솟아나는 선각적 신념에 의한 구성이라고 주장하였다.

제3강 박봉석

세 번째 강좌는 계명대학교 오동근 교수가 ‘박봉석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서관학자이자 선구자였던 박봉석 선생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강의하였다.

오 교수는 2000년에 박봉석 선생에 대한 우리 도서관계의 연구성과와 『동서편목규칙』과 『조선 십진분류법』등 박봉석 선생의 노작들을 묶어 책으로 엮은 『도서관인 박봉석의 생애와 사상』을 펴냈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본 강연을 진행하였다. 오 교수는 서두에서 서양의 훌륭한 도서관 사상가들에 대해 배우면서 부러움을 느꼈으며,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서관 사상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박봉석 선생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는 연구 동기를 밝혔다.

우선 박봉석 선생님의 생애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선생이 도서관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1931년 3월에 조선총독부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의 전신)의 직원이 되면서부터였으며, 이후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약 15년간을 이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분류와 편목업무에 주로 종사하였다고 한다. 그 사이에 박봉석 선생은 직원들의 연구발표회인 독서회를 통하여 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도서관인으로서의 박봉석 선생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시기는 바로 광복으로부터

터 남북되기 직전까지의 시기인 1945년 8월부터 1950년 7월까지의 약 5년간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복이후 한국인 직원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다음날 일본인으로부터 국립도서관을 접수하는 것으로 8월 17일에는 이른바 문헌수집을 위하여 결집대를 조직하여 당시의 귀중한 인쇄자료와 출판물을 수집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한국도서관계의 여러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기구로 “조선도서관협회”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협회의 결성 후에는 그 위원장(협회장에 해당함)을 맡아 일했다. 아울러 국립도서관의 관장으로 이재욱(李在郁) 선생을 초빙하고, 자신은 부관장을 맡아, 국립중앙도서관의 정비에 전념하였으며, 1946년 4월에는 도서관계의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하기 위해 국립도서관 부설로 도서관학교가 개교되자, 선생은 도서분류법과 동서편목법, 서지학 등의 과목을 맡아 직접 교육에 임하기도 하였다고 그의 업적에 대해 언급하였다.

오 교수는 박봉석 선생을 미국의 듀이(M. Dewey)나 인도의 랑가나단(S. R. Ranganathan)에 비교하였는데, 모든 면에서 정열적이었고 분류표를 고안했으며, 도서관학 교육을 담당했던 교육자였고, 도서관협회의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었다는 점등에서는 공통점이 많으나, 다른 점이 있다면 듀이나 랑가나단의 업적은 후진들에 의해 계승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반면, 박봉석 선생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하면서 그 점에서 박봉석 선생은 “불운의 도서관인”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진 연구 성과 덕택에, 박봉석 선생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어느 의미에서는 새로운 조명의 계기를 얻었다고 할 순 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여전히 미미하였고, 그에 대한 관심과 평

가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안타까운 현실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박봉석 선생의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과 도서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에서 정당하게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 날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는 말을 덧붙이며 강연을 마쳤다.

제4강 엄대섭

마지막 네 번째 강좌는 한성대학교 이용남 교수가 “엄대섭과 도서관운동”을 주제로 1960년대부터 마을문고 운동을 통해 우리 도서관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엄대섭 선생의 도서관운동의 발자취, 도서관 운동의 動因, 도서관운동의 양태, 문고운동추진 전략, 엄대섭의 퍼스넬리티, 의미와 평가를 중심으로 강의하였다.

1921년에 태어난 엄대섭 선생은 1951년에 경남 울산에 사립무료도서관을 설립·운영하였으며, 1953년에는 경주군립도서관을 설립하였고, 1955년에는 한국도서관협회 초대 사무국장을 지내기도 했다. 1961년부터는 마을문고를 고안하여 전국적인 보급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1974년에는 전국 3만여 개 농촌 마을에 문고설치를 설치하였다. 마을문고는 1982년부터는 ‘새마을문고’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엄대섭 선생이 도서관 운동에 헌신하게 된 動因으로 가난극복을 위해 독학을 통한 자수성가한 과정에서 인생의 고비에 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과 도서관을 통한 학문·교양이 실천적 생존의 무기가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된 때문이 아닐까하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운동의 양태는 공공도서

관운동과 마을문고 운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도서관운동은 대중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우선주의 운동으로 무료출산도서관·한국도서관협회·대한도서관연구회를 통해 전개되었다. 이 중 엄대섭 선생이 이끈 대한도서관연구회는 1) 공공도서관의 발전 및 운영개선을 촉진, 2)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회의 인식 고취, 3) 국민대중의 공공도서관 이용 의욕 고취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1) 개가열람제, 2) 관외대출제, 3) 이동도서관 운영을 활동의 중심으로 삼아 학생공부방을 탈피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한편 마을문고운동은 책보내기 운동을 통한 자주적인 독서운동으로 도서관 축소형태인 마을문고를 사람들의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독서시설로 활용하여 농어촌 자연부락단위의 자발적 운동으로 정착시켜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중심에 엄대섭 선생이 서 있었던 것이다.

엄 선생의 문고운동 추진전략은 1) 양을 갖춘 후, 질을 채운다. 2) 철저한 현실 바탕의 운동이 되도록 하고, 3) 공공도서관의 보완적 운동으로 인식하자는 것으로 설정하고 추진되었으나 재

적인 문제에 있어 수익사업은 배제하고 공익적 성격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여 결국 마을문고 운동의 동력이 크게 상실되었고 아쉬움을 표하였다.

사실 마을문고 운동은 엄대섭 선생의 퍼스널리티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엄 선생은 추진력과 지구력을 가지고 비즈니스적 관리와 진보적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한 능률과 이념에 대한 가치를 앞세워 의지를 결집시켜 목표한 바를 이루어 나갔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마을문고 운동의 의미는 농촌사회개발 단계에서의 운동양식으로 단위문고의 지속·성장보다는 공공도서관 시스템으로 편입 지향을 지향하였으나 아직도 미완성의 상태로 남아있으며, 운동의 결과보다는 운동의 추진과정·전개양식, 독서·도서관 등에 대한 사회적 함의, 에너지 동원력 등의 관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할 과제들을 남기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생존해 계신 인물의 개인사상과 철학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강연을 마쳤다.

포항공과대학교 미래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방안에 대한 논문공모

공모취지 : 포항공과대학교는 2002년 12월 완공예정인 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미래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래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방안"에 대한 논문을 공모합니다. 이번 논문 공모는 도서관계 여러분의 실무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토대로 한 많은 전문지식을 수렴함으로써 포항공대의 바람직한 미래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모기간 : 2001년 5월 1일 ~ 2001년 8월 30일

제 출 처 : 포항공과대학교 학술정보원 학술정보팀 미래도서관 논문공모담당자

주 소 : (790-784) 경북 포항시 효자동 산 31번지

E-mail : library@postech.ac.kr, serialacqu@postech.ac.kr

※상세한것은 본지 3.4월호 90쪽 참조